

캐나다 단기어학연수 파견자 결과보고서

1. 기본정보

이름		학번	
파견국가	캐나다	파견도시	밴쿠버
파견대학	Langara	기간	3주

2. 파견대학, 수업 및 Activity

구분	결과보고(서술형)
파견대학	<p>파견대학 위치, 규모 및 시설, 전체적인 분위기 등에 대하여 서술해 주세요.</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스카이라인(지하철) 역이 있어서 스카이라인이나 버스로 다니기 쉽다. 학교에는 수업을 듣는 학생들이 꽤 많이 있다. 방학이라 학교 안에 학생들이 적을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많은 학생들이 있어서 활기찬 분위기를 느낄 수 있었다. 학교 건물 안에 카페나 식당, 그리고 보건실 등 웬만한 시설들이 거의 다 갖춰져 있어서 딱히 불편함을 느끼지는 않았다.
수업	<p>수업내용, 수업방법, 분반여부, 강사, 과제, 수업준비 등 수업 전반에 대하여 서술해 주세요.</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업은 주로 회화 위주로 진행되지만 글쓰기 과제(짧은 일기 정도)를 내주고 선생님께서 첨삭을 해주시기도 한다. 같이 간 순천향대 학생들과 같이 한 반으로 수업을 듣는다. 과제는 거의 매일 내주는 하지만 대체로 간단하고 적당한 양이기 때문에 거의 부담감을 느끼지 못했다. 전날 내준 과제를 수업시간에 활용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과제를 충실히 해가는 것이 좋다. 수업시간에는 영어만을 쓰기를 권장하시므로 되도록이면 영어를 사용해야한다. 발표 수업과 토론 수업도 있는데 학생들에게 큰 부담을 주는 정도는 아니다.
Activity	<p>수업 외에 별도로 진행된 Activity에 대해 서술해 주세요.</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Activity 종류, 내용, 준비물, 추가비용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업 외 활동에는 컬링, 밴쿠버 박물관 방문, 그랜빌 아일랜드 방문, 밴쿠버 아쿠아리움 방문, 그리고 스노우슈잉이 있었다. 컬링은 활동 장소가 외부에 비해 다소 춥기 때문에 장갑을 준비해가면 좋다. 그리고 스노우 슈잉은 활동 특성상 눈에 신발이 젖기 쉬운데 한국에서 갈 때 쉽게 젖지 않는 부츠를 챙겨가는 것이 좋다. 챙겨가지 않아도 신발을 젖지 않게 해주는 오버슈즈를 빌릴 수 있는데 비용은 \$8이다.
--	----------------------------------------------------------------------------------------------------------------------------------------------------------------------------------------------------------------------------------------------------------------------------------------

3. 생활전반

구분	결과보고(서술형)
날씨	<p>현지 기후 및 유의점</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겨울이지만 가을 날씨 정도의 쌀쌀함이었다. 비가 거의 맨날 오다시피 했다. 우산은 필수다.
안전	<p>현지 안전 상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지의 치안 상태는 매우 양호하다. 다만 해가 빨리 지므로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저녁임에도 불구하고 사람이 없어 무서울 수 있다.
숙소	<p>학교기숙사() 홈스테이(O) 외부 숙소() 기타()</p> <p>숙소 시설, 분위기, 규칙, 유의사항 등 숙소 전반에 대한 평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홈스테이는 일반 가정 주택이었다. 홈스테이 식구들은 2층을 사용하고 나를 포함한 다른 홈스테이 학생은 1층을 사용했다. 홈스테이 가정의 분위기는 매우 화목해서 편안한 분위기를 주었으며 홈스테이 아주머니는 주말에 같이 베이킹을 하자고 제안하는 등 전반적으로 홈스테이 동안에 즐겁고 편안하게 지낼 수 있도록 많은 배려를 해주었다. 처음에 힘들었던건 아무래도 욕실 사용 규칙이었는데 한국과 달리 샤워시간도 짧고 욕실도 건조하게 유지해야 하는 것이 조금 힘들었다.
식사	<p>학교식당() 홈스테이(O) 외부식당() 기타()</p> <p>본인이 주로 이용한 식사방법 체크, 식사 전반에 대한 평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홈스테이 음식이 입맛에 맞아서 주로 저녁은 홈스테이 가정에서 먹었으나 일주일에 한 두번은 외부식당에서 저녁을 해결했다. 밴쿠버에서는 다양한 나라의 음식을 맛볼 수 있는 기회가 많으니 다양한 음식을 먹어보는 것도 추천한다. - 점심식사는 주로 홈스테이에서 저녁에 먹은 음식을 싸갔다. 첫날 샌드위치를 싸주셨는데 너무 부실하고 맛이 없어서 그냥 남은 음식을 싸달

	라고 부탁드립니다. 자기 입맛에 맞는 방식으로 부탁 드리는게 좋을 듯하다.
교통	<p>통학방법, 시내교통 관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집에서 버스를 한 번 타고 스카이라인을 타고 학교에 갔다. 시간은 대략 30분 정도 걸렸다. 환승방법도 매우 쉽고 지하철도 엄청 자주 다녀서 교통에 불편함은 딱히 느끼지 못했다. 학교에서 지하철이나 버스를 타고 다운타운까지 가는데 얼마 안 걸리고 방법도 매우 간단해서 편리했다. - 학교에서 첫날 교통카드를 지급해주기 때문에 통학을 위한 교통비는 따로 필요하지 않다.

4. 소요경비 (본인이 지출한 총 비용)

단위: 원

※ 출국 전 사전 납부 금액 외에 추가로 현지에서 본인 지출내역을 써주세요.

항목	비용	비고(간략한 비용내역 등)
항공료, eTA, 여행자보험	약 1,411,900	출국 전 사전 납부
외식, 음료 등	약 218,287	
쇼핑, 기념품 등	약 668,957	
생필품	약 29,483	
입장료(개인여행)	약 83,352	
합계	약 1,000,079	

5. 출국 전 준비사항

<p>파견 전 반드시 꼭 알아야 할 사항, 알았으면 좋았을 사항 중심으로 서술해 주세요.</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밴쿠버에서는 보통 빨래를 일주일에 한 번 정도 하니 수건을 넉넉히 챙겨가는 것이 좋을듯하다. - 비올 때 바람도 좀 많이 부는 경우가 있으므로 너무 약한 우산 말고 튼튼한 우산을 챙겨가는 것이 좋다. - 미리 작성하는 홈스테이 신청서는 신중하고 솔직하게 작성해야 나중에 홈스테이 생활 할 때 불편한 일이 적어진다. - 홈스테이 가정을 위해 미리 선물을 사가는 것을 추천한다. 특히 한국의 특별한 기념품 같은 것을 선물해드리면 매우 좋아하신다.

6. 본인 소감 및 평가

본인의 경험담, 느낀점, 향후 계획 등을 솔직하고 자유롭게 작성해 주세요.

3주라는 기간 동안 눈에 띄는 영어실력 성장을 기대할 수는 없지만 캐나다, 그리고 밴쿠버라는 도시의 문화를 체험하고 느끼기에는 충분하고 유익한 시간이었다. 학교 수업은 보통 오후 세시에 끝나기 때문에 그 이후 시간을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어서 매우 좋았다. 밴쿠버에는 많은 관광지들이 있으므로 수업 후 남은 시간이나 주말을 활용해 방문해보는 것을 추천한다. 홈스테이 가정의 분위기나 환경등은 가정마다 매우 다른데 나는 그래도 매우 화목하고 편안한 분위기의 가정이었다. 홈스테이 아주머니는 항상 나의 의견을 먼저 물어 보시는 등 많은 부분에서 배려해주시려고 노력했다. 홈스테이 가정을 위해서 내가 도와줄 일이 있는지 먼저 물어보고 간단한 식사준비나 식사 후 뒷정리를 돕는 것도 좋다. 만약 불편하거나 고쳐주었으면 하는 것이 있다면 정중하고 조심스럽게 먼저 부탁드립니다.

밴쿠버에 비가 자주 와서 많이 불편했다. 홈스테이 식구들이나 학교 선생님들께서 모두 한 목소리로 말씀하시기를 밴쿠버는 여름이 정말 멋진 곳이라고 했다. 그래서 솔직하게 겨울보다는 여름 단기어학연수를 좀 더 추천하고 싶다.

단기어학연수 기간 동안 밴쿠버 다양한 곳을 다니고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면서 여러모로 좀 더 성장할 수 있었다. 자연스럽게 영어를 듣고 사용할 수 있는 환경과 다양한 문화와 사람들을 만날 수 있는 기회를 원한다면 단기어학연수를 정말 추천하고 싶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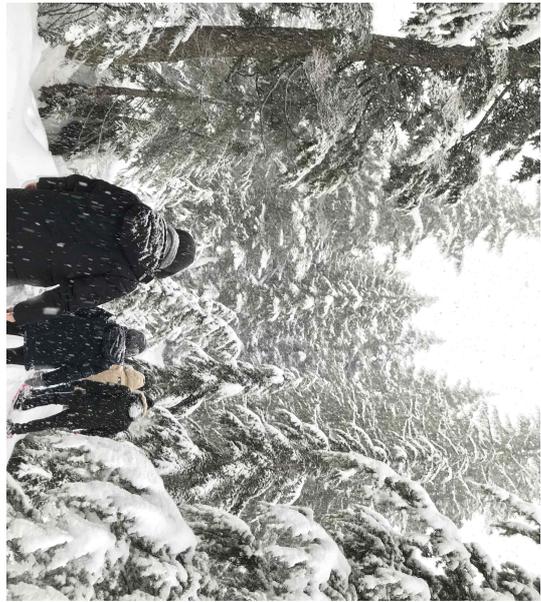
7. 사진보고서(6장 이상)



컬링



그랜빌 아일랜드



스노우슈잉



캐필라노



빅토리아



캐나다 플레이스